



❧ 스키경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서 살던 고대인들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눈 위에서 걷기 편리한 설리같은것을 리용하였으며 그것을 사냥과 지어 군사활동에도 리용하였다. 스키타기는 수천년전부터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를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나 그것이 경기형식으로 되기 시작된것은 1850년경부터이다. 1866년 노르웨이에서 스키경기가

진행되었으며 1877년에는 세계최초의 스키구락부가 무어졌다. 1879년 오슬로 교외에서 스키조약경기가 진행된데 이어 1892년에는 스톡홀름에서 세계최초의 국제스키대회가 열리었다. 스키운동은 알프스산맥을 낀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비롯한 나라들에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알프스산맥을 낀 나라들에서는 그 지형학적특성에 맞는 내려치치

기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를 하였으며 이것이 후에 알프스스키(고산스키)로 체계화되고 더욱 다양화되었다. 그리하여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노르디크스키(노르웨이북방이라는 뜻)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알프스스키가 대립되게 되었다. 여기로부터 스키종목이 알프경기, 종목과 노르디크경기종목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스키는 1924년 제1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때부터 정식 올림픽종목으로 되었다. 1924년에 국제스키연맹이 조직되었으며 1925년부터 세계선수권대회를 진행하고있다. 스키경기에는 스키저리경기(노르딕) 혹은 북방형스키경기)와 스키고산경기(알프스경기), 스키조약경기, 겨울철현대 4, 5종경기 등 여러가지가 있다.

본사기자

효능높은 고려주사약생산의 공업화 실현

만년제약공장에서 암에 대한 예방치료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비라민B17을 공업적방법으로 다량생산할수 있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는 암이 없는 나라로 불리우는 나라들이 있다고 한다. 의학자들은 이 나라들에 암환자들이 없는것은 이곳 사람들이 살수 씨로 만든 약을 쓰고 살수 씨기름을 1년내내 먹는것과 관련되어있다는것을 밝혀냈다. 살수씨에는 강한 항암작용을 하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여기에 깊은 주박을 돌린 공장의 기술자들은 여러해동안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침단의약품으로 인정받은 비라민B17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유기용매법으로 살수씨에서 기름을 짜고 나오는 박

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성분을 추출, 분리하는 기술을 확립하였다. 또한 주사약을 공업적방법으로 다량생산할수 있는 공정도 그쁘히 꾸려놓았다.

최근 세계적으로 암의 예방과 치료에 비라민B17이 광범히 리용되고있는데 이 약품은 현재 몇개 나라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독점물로 되어있다.

이런 조건에서 공장의 기술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민족적자존심과 야심만만한 투지를 지니고 두뇌전을 힘있게 벌려 살수씨에서 아미그달린성분을 추출, 분리하는 수를 올릴수 못지 않는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정맥주사용비라민B17은 고지혈증과 암의 치료와 예방에 쓰

인다.

암환자인 경우 암성동통이 없어지고 종물이 작아지면서 치료되었다고 한다. 치료뿐만아니라 예방에 특효가 있다.

이 주사약은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작용이 없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타격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높아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함량을 정상수치로 되게 하고 순환기질병과 고혈압병치료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알레르기성질환치료에도 좋은 이 주사약을 항산화제인 비라민 C, E 등과 함께 쓰면 보다 큰 로화방지작용도 한다고 한다. 비라민B17의 공업적생산은 나라의 제약공업발전과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의 귀중한 고전유산 《백두산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겨레의 귀중한 민족고전유산들중에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처음으로 상세히 소개하고있는 《북새기략》의 속편 《백두산고》도 있다.

《백두산고》는 18세기에 활동한 유학자인 홍량호(1724-1802)가 백두산의 자연, 지리, 동식물, 지명, 강하천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문헌으로서 사료적가치가 크다.

《백두산고》에서는 우리 겨레와 다른 나라 사람들속에서 각이한 역사적시기에 여러가지로 불리우던 백두산과 관련한 명칭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있다.

또한 백두산일대의 자연지리와 동식물관계자료들도 상세히 소개하고있다.

《백두산고》는 백두산을 전면적으로 소개하고있는 유일한 고전문헌으로서 백두산의 자연과 역사자료들을 풍부히 하고 연구를 심화시키는데서 귀중한 사료로 된다.

《백두산고》는 예로부터 백두산은 조선의 성산으로서 우리 겨레가 민족의 존엄과 기상의 상징으로 숭상해왔다는 생동한 자료를 제공해주고있다.

《백두산고》에 소개된 백두산일대의 자연과 지리에

대한 자료는 오늘날에 와서 백두산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는데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된다.

본사기자

단편 소설

순결한 마음 (8)

글 주 광 혁, 그림 김 윤 일

3

жат은 간격으로 수축이 시작됐다.

물주머니가 해산길로 압착되어 러지면서 액체가 흘러나오고 주기성이 뚜렷해지지도 2시간이 넘었다.

상식적으로도 첫 새끼가 나왔어야 한다.

《〈평화〉야, 힘을 내. 힘을 내라는데.》

모로 누운 《평화》가 힘들게 머리를 들고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나를 찾는 눈빛이었다. 끝없는 고통과 호소, 갈망과 애원의 눈빛앞에 나는 죄지는 사람의 심정으로 바세었다.

파들파들 떨던 《평화》의 배가죽이 한껏 부풀더니 풀무처럼 뿜어나오는 소리같은 고통의 하소가 나의 고막을 짝 메운다.

《평화》야, 맥을 놓지마. 응, 그리고 제발 긴장을 풀어주렴.

갑자기 후다닥 머리를 쳐든 《평화》가 배를 쓸어주고있던 나의 손을 덥석 깨물었다.

맥이 진했는지 힘껏 물지 못하고 잘근잘근 짓씹으며 고통스러운 소리를 낸다.

땀시었고도 예리하게 종긋거리던 두귀는 풀잎처럼 시들해졌고 윤기나던 턱색은 광택을 잃었다.

목구멍에선 가래를 뚫는것같은 갈그랑소리가 토막토막 새어나왔다.

힘껏 깨물어, 《평화》야! 그리고 힘을 내.

나의 호소를 느꼈는지 지그시 힘을 주는 《평화》의 날카로운 송곳이가 손등과 바닥을 파고들었다.

순간 나는 전기에 감전이 라도 된듯 온몸이 움츠러드는것 같았다.

그러나 손만은, 《평화》에게 맡긴 손만은 움츠러들수 없었다.

지금 《평화》가 겪고있는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송곳이가 깊숙이 파고들수록 온몸의 신경세포들이 맹렬히 몸부림치고 그 세포들의 눈물인듯 피가 흘러나왔다.

《명옥동무, 손을 빼요. 명옥이, 손을!》

《가만있어요!》

내 몸의 어느 구석에서 그렇게 엄철한 소리가 나갔는지 반장만이 아니라 순애의 숨소리마저 졸지에 멎어버렸다.

신음소리가 쉼가보아 나는 어금이를 앙다물었다.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듯 세차게 고동치고 입안은 가랑이가 불타듯 타들어갔다.

후더운 감이 잔등으로부터 느껴지더니 줄기에 달린 불길처럼 목을 타고 올라가

이마에 진한 땀줄기를 이루었다.

순애가 부지런히 닦아주었으나 내얼굴이며 목에서는 시루에서 떨어지는 물

새로 발굴된 신석기시대 무덤유적

최근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의 연구집단이 강동군 탄산리에 있는 주현동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수많은 유물들을 새로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들은 강동군 탄산리에 있는 주현마을 주변산의 자연동굴 퇴적층에서 나온것이다. 이 동굴의 길이는 18m, 너비는 4m, 높이는 7.3m이며 퇴적층의 두께는 5.8m이다.

퇴적층은 퇴적물의 조성상 특징에 의하여 서로 다른 5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유물은 제3층에서만 발굴되었다.

유물들은 사람뼈 9개체분에 260점, 짐그릇조각 7개체분에 22점이며 기타 유물들로서는 달아매는 치레거리 1점, 조개칼 2점, 불에 탄 뼈 4점, 짐승뼈 5종에 81점이다.

발굴된 사람뼈들은 신석기시대의 조선포유형사람의 뼈이다. 지금까지 대동강유역에서 구석기시대 전기와 중기, 후기의 인류화석 등과 함께 신석기시대의 조선포유형사람뼈들이 발굴고증된것

이 적지 않지만 주현동유적에서와 같이 한창소에서 많은 개체의 사람뼈들이 발견된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유적에서 나온 짐그릇의 무늬새김수법은 신석기시대 중기의 늦은 시기에 나타나 는 새김수법과 같은것으로서 주현동유적의 연대가 신석기시대 중기말에 해당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현동유적은 우리 나라 대동강유역에서 나온 신석기시대의 첫 무덤유적이다. 새로 발굴한 주현동유적을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던 곳으로 보는가 아니면 무덤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이 유적의 성격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신석기시대 동굴유적들에서 사람뼈들이 알려졌지만 이 유적에서와 같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나온것은 없다고 한다. 이것은 여기에 사람뼈들이 우연적으로 묻힌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정히 매장한 무덤이라는것을 보여준다.

한편 짐그릇을 비롯한 유물들이 사람뼈가 나온 구역에서

만 나오고 마제석기와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로동도구와 식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유물들이 나오지 않았다는것은 이 유적이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던 곳이 아니라 무덤이라는것을 확증해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유역에서 신석기시대의 무덤이 발굴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현동유적이 발굴됨으로써 조선포유형사람들이 창조한 신석기시대문화가 청동기시대를 거쳐 단군조선의 문화로 줄기차게 이어져왔다는것이 다시한번 명백히 확증되었다.

본사기자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

으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맹천 추위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눈덮인 산으로 내달리며 낚짐승, 산짐승, 들짐승을 잡는 사냥을 즐겨하였다.

사냥에서 널리 쓴 방법들은 구멍이를 파고 그안에 강병이나 조이삭, 갑자알, 톱각지 등을 넣은 다음 그우에 는 약간 너스레를 치고 흙을 얹게 덮거나 나무뿔을 깔아두었다가 짐승이 빠지게 하는것이었다. 이런 함정으로는 주로 매돼지나 범, 곰, 노루 등을 잡았다.

함정안의 중간에 그물을 쳐두면 짐승을 산채로 잡을 수도 있었다.

짐승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로 뜬 그물을 쳐놓고 토끼나 여우, 노루 등을 몰아서 산채로 잡는 경우도 있었다. 쇠줄이나 삼노끈, 명주실 끈자를 고를 내려 흘쳐서 만든 응노(올가미)를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놓고 토끼, 오소리, 너구리, 족제비의 목이나 발목을 걸어 잡기도 하였다.

사냥방법들가운데서 아무 때 아무데서나 할수 있으며 또 튼튼한 체력과 역센 담력이 안반침되어야 하는것은 창으로 쏘려잡는것이였다.

젊은이 3~4명이 함께 잡자는 꿈을 깨우거나 혹은 곰, 매돼지와 맞다들었을 때 일시에 힘을 합쳐 창질을

선조들의 겨울철로동생활

사냥

한다. 제일 경험있는 1창수는 달려드는 짐승을 정면에서 맞받아 목이나 그아래 가슴을 번바로 찌른다. 창에 찔려온 짐승은 계속 앞으로 내밀기때문에 창끝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이때 창자루의 뒤줄을 큰 바위나 나무뿔 등에 갖다대고 딱 버티어야 한다. 이때 2창수나 3창수는 옆에서 짐승의 눈과 목을 뒤편속 찔러 방향을 가누지 못하게 하며 맥을 뿜아버린다.

창으로 곰이나 범, 매돼지와 같은 큰 짐승을 찔러 잡는것은 매우 위험하였으

로 모든 사냥꾼들이 긴장하고 용맹해야 하며 사냥꾼들 사이에는 의리가 깊어야 하였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령리하고 날랜 풍산개와 진도개, 제주도에서 나는 토종개들을 리용하여 사냥을 많이 하였으며 매를 길들여 사냥에 리용하기도 하였다.

사냥은 칼바람을 맞받아 눈덮인 들판과 산판을 쉬임없이 내달려야 하며 때로는 위험도 겪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한해의 농사일과정에 역센 체력과 슬기와 담력을 키운 청장년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사냥터를 종횡무진하며 많은 짐승을 잡았으며 몸과 마음을 더욱 단련하였다.

창으로 사냥은 사람들에게 맞있는 고기와 좋은 털가죽을 쏙뼉아니라 힘과 용맹을 키워주고 의리를 깊게 하여 주는 매우 유익한 겨울철로동생활품종이었다.

본사기자

처럼 땀줄기가 끊길줄 몰랐다.

그렇게 호른 땀이 속옷을 적시며 두어개와 앞가슴에 내배었고 그렇게 호른 땀이 《평화》의 몸통에도 떨어졌다.

나는 얼굴과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으로 축축히 젖어드는 《평화》의 몸통을 그제서야 느끼며 서둘러 얼굴을 닦았다.

우리의 한쪽 구석에서 불

리며 잔뜩 주름살지운 웃입술아래 송곳이와 빨간 허를 약간 내밀고 가래뚫는 소리를 내면서 《평화》를 둘러싸고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다.

《통일》아, 너무 걱정말아. 그리고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지마.

나도 보고있지? 너희들을 위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



안한 눈빛을 번쩍이며 응크리고있는 《통일》이 안겨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꼭 잘 될거야.

아름이 점점 무뎠어졌다. 손은 감각을 잃은듯 했고